

“정규 편성 목표...MBC서 최우수상 받고파”

허경환, 유세윤·장동민 등과 등산 예능 ‘최우수상’ 출연

“연예대상 우수상은 방송3사에서 다 받았어요. 최우수상의 첫 스타트는 MBC에서 끊고 싶습니다.”

개그맨 허경환은 지난 28일 열린 신규 예능 ‘최우수상’ 제작발표회에서 올해 MBC 방송연예대상 최우수상에 대한 야심을 드러냈다.

그는 “사실 ‘최우수상’은 파일럿 프로그램이라서 현재는 5회까지만 방송이 보장돼 있는데, 시청자들의 반응을 잘 얻어 정규 프로그램이 된다면 최우수상은 무조건 우리 중에 나올 것”이라며 “그리고 그게 바로 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우수상’은 지난해 ‘MBC 방송연

예대상’에서 남자 최우수상을 두고 유쾌한 접전을 벌였던 개그맨 유세윤, 장동민, 양세형과 방송인 붐, 그리고 개그맨 허경환이 함께 등산을 떠나는 버라이어티 예능이다.

연출을 맡은 김명영 PD는 “등산 예능이지만, 사실 등산은 평계인 예능이다. 등산 외에도 출연자 다섯 명의 케미스트리(호흡)와 난장판 토크, 게임 등 여러 요소가 담긴 버라이어티”라고 프로그램을 설명했다.

김 PD는 “앞서 ‘라디오스타’ 때도 허경환을 4번이나 섭외했다. 일종의 저점 매수였다”며 “체력과 외모에 이어, 최근 화제성까지 모두 갖추게 된 허경환



허경환이 ‘최우수상’ 제작발표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을 안 모실 수 없었다”고 섭외 이유를 밝혔다.

이어 “굳이 따지자면 우리 프로그램에선 허경환이 MBC ‘태계일주’의 텍스 같은 역할”이라며 “허경환은 최우수상을 넘어 대상까지도 넘볼 수 있는 인물”이라고 치켜세웠다. /연합뉴스

| 음력3월 14일 천문역원 (062)673-2427 | |
|--------------------------------|--|
| 子 | 쥐띠: 지금 당장은 안갯속을 걷는 듯 답답할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밝은 빛이 보일 것이니 인내심을 갖고 지켜보라. 48년생 집안엔 머물기보다 밖으로 나가라. 가까운 공원 산책만으로도 운의 기운이 맑아진다. 60년생 새로운 일을 벌이기보다는 이미 시작한 일들을 끈기 있게 마무리하는 데 집중해야 유종의 미를 거둔다. 72년생 손재주와 감각이 남다른 날이다. 무언가를 만들거나 고치는 일에서 실력을 발휘해 기쁨을 얻는다. 84년생 욕심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라. 내일을 위한 재충전의 시간으로 하루를 갈무리하는 것이 현명하다. 96년생 자신감이 넘치더라도 자만은 금물이다. 행운의 수: 1.8행운의 색: 흰색 |
| 丑 | 소띠: 혼자서 모든 것을 짊어지려 하지 마라. 독단적인 결정은 오만을 부를 수 있으니 주변의 믿을 만한 사람들과 충분히 상의하라. 49년생 스스로를 믿고 추진력을 발휘하라. 자신감 있는 태도가 경직된 상황을 부드럽게 만드는 유효성을 불렀다. 61년생 의욕이 앞서 과하게 나서면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적당히 물러나 본인의 컨디션을 조절하는 것이 우선이다. 73년생 마무리가 흐릿하면 공든 탑이 무너진다. 어떤 일든 끝맺음을 깔끔하게 처리해야 좋은 평판이 따른다. 85년생 배운다는 끈이 없는 법이다. 지식을 익히고 뒤는 과정 속에 점차 큰 폭이 들어올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97년생 눈치와 센스가 필요한 날이다. 행운의 수: 0.1행운의 색: 검은색 |
| 寅 | 호랑이띠: 과감한 결단과 실행력이 돋보이는 날이다. 새로운 계획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추진하라. 기대 이상의 성과가 기다린다. 52년생 활동량이 많은 하루이므로 체력 소모가 크다. 건강을 위해 세 끼 식사를 규칙적으로 챙겨 먹는 것이 중요하다. 62년생 전면에 나서기보다 한 발짝 뒤에서 조연자의 역할을 수행하라. 그 겸손한 태도가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74년생 실수를 줄이고 싶다면 관찰자가 되어라. 타인의 행동을 먼저 지켜본 뒤 움직이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비결이다. 86년생 본인의 이기기가 넘쳐나도록 주변 사람들의 사면에 행을 기울이며 공감의 시간을 갖는 것이 유익하다. 행운의 수: 2.5행운의 색: 파란색 |
| 卯 | 토끼띠: 배움과 정리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다. 특히 중요한 평가를 앞두고 있다면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살펴보는 집중력이 필요하다. 51년생 건강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 사소한 부주의가 병원 신세로 이어질 수 있으니 컨디션 조절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63년생 몸의 작은 이상 신호도 무시하지 마라. 증상이 있다면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큰 병을 막는 길이다. 75년생 마음먹기에 따라 세상이 달라 보인다.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으로 전환할 때 안 풀리던 일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다. 87년생 혼자 고민하기보다 사람들과 어울려 소통하라. 대화속에서 뜻밖의 기회와 즐거움 소식이 가득하다. 행운의 수: 4.8행운의 색: 노란색 |
| 辰 | 용띠: 협력보다는 독립적인 활동이 유리한 날이다. 자신의 주관을 믿고 스스로 결정하여 추진할 때 비로소 성과가 나타난다. 40년생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 무리한 일정은 피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상책이다. 52년생 평소의 조언이 오늘 통하지 않을 수 있다.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여 오늘은 묵묵히 지켜봐 주는 것이 낫다. 64년생 주변의 시비나 거슬리는 말에도 흔들리지 마라.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침착하게 인내하는 것이 승리다. 76년생 선택의 기로에서 너무 깊은 고민은 오히려 화가 된다. 신중히 결단은 단순하고 명료하게 내리는 것이 좋다. 88년생 인연이 좋은 날이다. 행운의 수: 6.7행운의 색: 흰색 |
| 巳 | 뱀띠: 일의 진척이 더더욱 답답함이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조금씩은 일을 그려치기 쉬우니 여유를 갖고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하다. 41년생 가벼운 농담이라도 때와 장소를 가려야 한다. 무심코 던진 말에 상대가 상처받을 수 있으니 언행에 주의하라. 53년생 가벼운 게임은 즐거움을 주지만, 자존심을 건 승부는 감성 소모만 부른다. 지나친 승부욕은 멀리하라. 65년생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배움에 대한 열정을 잃지 말고 고집하게 새로운 지식에 투자하라. 77년생 급한 결정은 후회를 남긴다. 상황을 충분히 살피고 때를 기다리는 인내심이 당신을 화로부터 지켜줄 것이다. 89년생 안 되는 일에 미련을 두지 마라. 행운의 수: 1.2행운의 색: 연두색 |
| 午 | 말띠: 귀가 알아지기 쉬운 날이다. 타인의 감언이설에 휘둘리지 말고 본인이 하던 일에 집중하며 중심을 잡으라. 42년생 말로만 하는 표현은 실속이 없다. 진심을 담아 직접 행동으로 옮길 때 비로소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된다. 54년생 원칙을 고수하는 태도가 처음엔 힘들어 보이나 결국 정당한 결실을 가져다주니 손해 볼 것이 없다. 66년생 현실적인 인목을 가져야 한다. 도달하지 못할 목표에 예너지를 낭비하기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라. 78년생 내일의 중요한 일정을 오늘 미리 점검하고 준비하라. 철저한 대비가 성공의 확률을 높여준다. 90년생 따뜻한 사랑의 기운이 충만한 하루다. 행운의 수: 3.6행운의 색: 민트색 |
| 未 | 양띠: 본인의 임무에만 충실하라. 관허님의 일에 참견하거나 끼어들면 본의 아니게 구설에 오르게 하니 책임을 떠안게 된다. 43년생 약속은 신의의 기본이다. 시간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모습이 당신의 품격을 높여줄 것이다. 55년생 대인관계를 위해 지갑을 여는 것을 아끼워주지 마라. 오늘의 작은 배움도 더 큰 유대감으로 돌아온다. 67년생 공전의 호를 시 시작되는 시기다. 하지만 불확실한 투자는 피하고 안정성이 확인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현명하다. 79년생 관공의 호를 시 시작되는 시기다. 하지만 불확실한 투자는 피하고 안정성이 확인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현명하다. 79년생 관공의 호를 시 시작되는 시기다. 하지만 불확실한 투자는 피하고 안정성이 확인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현명하다. 79년생 관공의 호를 시 시작되는 시기다. 하지만 불확실한 투자는 피하고 안정성이 확인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현명하다. 행운의 수: 2.8행운의 색: 빨간색 |
| 申 | 원숭이띠: 완급 조절이 필요한 날이다. 긴장과 이완의 시간을 적절히 분배하여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도록 관리하라. 44년생 본인의 단점을 경계하라. 평소 스스로 문제라고 느꼈던 지점에서 같듯이 생각할 수 있으니 각별히 자중해야 한다. 56년생 겉치레뿐만 명예에 연연하지 마라. 내실을 다지고 실익을 챙길 수 있는 일에 집중하라. 68년생 실력이 있다 하여 자만하지 마라. 주변 사람을 무시하는 언행은 결국 본인에게 독이 되어 돌아온다. 80년생 과거의 나쁜 기억은 과감히 털어버려라. 다가올 희망찬 계획에 집중하며 밝은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 이롭다. 행운의 수: 5.9행운의 색: 분홍색 |
| 酉 | 닭띠: 당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시기다. 당당하면서도 여유로운 태도가 당신의 가치를 높여줄 것이다. 45년생 자존심을 세우기보다 너그러운 양보를 선택하라. 그 여유로운 모습이 당신을 더욱 멋지고 품위 있게 만들어준다. 57년생 밖으로 나가기보다 집 안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며 심신을 안정시키는 것이 훨씬 실익이 있다. 69년생 건강을 늦추는 순간 사소한 실수가 발생한다. 익숙한 업무일수록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해야 당황할 일이 없다. 81년생 충동적인 판단은 멀리하라. 긍정적이고 건전한 사고방식으로 신중하게 움직여 목표에 다다를 수 있다. 행운의 수: 0.4행운의 색: 파란색 |
| 戌 | 개띠: 세밀한 확인이 필요한 날이다. 본인이 직접 챙기지 않으면 중요한 것을 놓치거나 잃어버릴 수 있으니 주의하라. 46년생 지출 관리가 필요하다. 충동적인 소비를 막기 위해 가급적 카드는 두고 현금만 분산해서 지출하는 것이 지혜롭다. 58년생 가슴을 답답하게 했던 고민들이 하나씩 풀리기 시작한다.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하니 희망을 갖는다. 70년생 과욕을 버리고 원리를 기어라. 너무 무자라지도 넘치지도 않게, 적당한 중도를 지키는 태도가 안전하다. 82년생 작은 성공에 도취하여 자만하지 마라. 겸손한 자세로 본인을 낮출 때 더 큰 성공의 기회가 찾아온다. 행운의 수: 3.5행운의 색: 연두색 |
| 亥 | 돼지띠: 멋맞고 당당하게 본인의 입장을 밝히라. 뒤로 숨거나 상처받기보다 확실한 자기 의사 표현이 필요한 날이다. 47년생 타인을 향한 따뜻한 배려와 온정이 꼬인 매듭을 푸는 강력한 열쇠가 되어줄 것이다. 59년생 눈앞의 작은 변화에 흔들리지 마라. 현재의 일회성보다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멀리 내다보는 안목이 필요하다. 71년생 사람들의 만남 속에서 귀한 정보와 아이디어가 쏟아진다.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네트워크를 넓혀라. 83년생 실력이 널리 알려지며 당신을 찾는 이들이 늘어난다. 배뺀지는 만큼 겸손함을 유지하며 본인의 자리를 지키라. 95년생 사소한 일에 일일이 신경 쓰지 마라. 행운의 수: 2.8행운의 색: 주황색 |

광주매일TV 프로그램 안내 kjdaily.com PC·스마트폰 YouTube Facebook에서 볼 수 있습니다

- [뉴스] 창조클럽 제3강 김동규 성악가 '이 장면을 아시나요'
- [Shorts] 원도 수산물 창고 화재 실종 소방대원 숨진 채 발견
- 광주 '철쭉 유채꽃' 봄의 2막 시작
- KIA 변우혁 선수가 팬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
- "중·고생 작품 맞아?" ACC 전시 회제
- [토크내담] 광주 유일의 여자 야구단 '스윙이클스'

최인태의 사주칼럼

내란을 주도한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징역 30년을, 김태환 전 국방부장관과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각각 징역 25년과 20년을 구형받았다. 정말 권력의 허무함을 잘보여주는 사건이다.

최인태의 사주칼럼은 권세의 정점에 섰던 이들이 한순간에 내려오는 과정을 보여준다. 절정의 순간이 곧 하강의 시작이라는 역학(易學)의 원리가 현실에서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명리학(命理學)에서 인간의 삶은 사계절의 흐름과 같다. 봄은 시작과 성장, 여름은 확장과 절정, 가을은 수확과 정리, 겨울은 저장과 내면의 시간이다. 권력 또한 이 흐름을 벗어날 수 없다. 한때 뜨겁게 타오르던 여름의 기운이 지나면 반드시 가을의 정리와 겨울의 고요가 찾아온다. 문제는 많은 이들이 여름의 절정에서 멈출 수 있다고 착각한다는 점이다.

이런 사건은 과도한 화(火)의 기운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잘 보여준다. 화는 빛과 권력, 명예를 상징한다. 그러나 화가 지나치면 스스로를 태우는 불이 된다. 강한 추진력과 결단이 장점이 될 수 있지만, 균형을 잃으면 독단과 충돌로 이어진다. 이는 결국 자신을 소모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용신(用神)이다. 용신은 한 사람의 사주에서 균형을 잡아주는 핵심 기운이다. 화가 강하면 수(水)로 식히고, 토(土)로 중심을 잡아야 한다. 수는 냉정함과 성찰, 소통을 의미하며, 토는 안정과 책임을 뜻한다. 만약 강한 권력의 시기에 이러한 용신의 역할을 작동했다면, 극단적인 흐름을 벗어날 수 있었다.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

타오르던 여름의 기운이 지나면 반드시 가을의 정리와 겨울의 고요가 찾아온다. 문제는 많은 이들이 여름의 절정에서 멈출 수 있다고 착각한다는 점이다.

이런 사건은 과도한 화(火)의 기운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잘 보여준다. 화는 빛과 권력, 명예를 상징한다. 그러나 화가 지나치면 스스로를 태우는 불이 된다. 강한 추진력과 결단이 장점이 될 수 있지만, 균형을 잃으면 독단과 충돌로 이어진다. 이는 결국 자신을 소모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용신(用神)이다. 용신은 한 사람의 사주에서 균형을 잡아주는 핵심 기운이다. 화가 강하면 수(水)로 식히고, 토(土)로 중심을 잡아야 한다. 수는 냉정함과 성찰, 소통을 의미하며, 토는 안정과 책임을 뜻한다. 만약 강한 권력의 시기에 이러한 용신의 역할을 작동했다면, 극단적인 흐름을 벗어날 수 있었다.

이런 사건은 과도한 화(火)의 기운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잘 보여준다. 화는 빛과 권력, 명예를 상징한다. 그러나 화가 지나치면 스스로를 태우는 불이 된다. 강한 추진력과 결단이 장점이 될 수 있지만, 균형을 잃으면 독단과 충돌로 이어진다. 이는 결국 자신을 소모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용신(用神)이다. 용신은 한 사람의 사주에서 균형을 잡아주는 핵심 기운이다. 화가 강하면 수(水)로 식히고, 토(土)로 중심을 잡아야 한다. 수는 냉정함과 성찰, 소통을 의미하며, 토는 안정과 책임을 뜻한다. 만약 강한 권력의 시기에 이러한 용신의 역할을 작동했다면, 극단적인 흐름을 벗어날 수 있었다.

이런 사건은 과도한 화(火)의 기운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잘 보여준다. 화는 빛과 권력, 명예를 상징한다. 그러나 화가 지나치면 스스로를 태우는 불이 된다. 강한 추진력과 결단이 장점이 될 수 있지만, 균형을 잃으면 독단과 충돌로 이어진다. 이는 결국 자신을 소모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용신(用神)이다. 용신은 한 사람의 사주에서 균형을 잡아주는 핵심 기운이다. 화가 강하면 수(水)로 식히고, 토(土)로 중심을 잡아야 한다. 수는 냉정함과 성찰, 소통을 의미하며, 토는 안정과 책임을 뜻한다. 만약 강한 권력의 시기에 이러한 용신의 역할을 작동했다면, 극단적인 흐름을 벗어날 수 있었다.

이런 사건은 과도한 화(火)의 기운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잘 보여준다. 화는 빛과 권력, 명예를 상징한다. 그러나 화가 지나치면 스스로를 태우는 불이 된다. 강한 추진력과 결단이 장점이 될 수 있지만, 균형을 잃으면 독단과 충돌로 이어진다. 이는 결국 자신을 소모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용신(用神)이다. 용신은 한 사람의 사주에서 균형을 잡아주는 핵심 기운이다. 화가 강하면 수(水)로 식히고, 토(土)로 중심을 잡아야 한다. 수는 냉정함과 성찰, 소통을 의미하며, 토는 안정과 책임을 뜻한다. 만약 강한 권력의 시기에 이러한 용신의 역할을 작동했다면, 극단적인 흐름을 벗어날 수 있었다.

으로 치닫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인생의 교훈은 분명하다. 첫째, 절정일수록 내려올 준비를 해야 한다.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오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 둘째, 강한 기운일수록 그것을 제어할 균형이 필요하다. 셋째, 권력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맡겨진 흐름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사계절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른다. 봄이 오면 반드시 여름이 온다, 여름 뒤에는 가을과 겨울이 따른다. 이를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결국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계절을 알고, 그에 맞는 선택을 한다.

화무십일홍이라는 말은 단순한 허무가 아니라, 경계의 메시지다. 가장 빛나는 순간에 스스로를 돌아보고 균형을 잡을 때, 비로소 긴 흐름 속에서 무너지지 않는 삶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사건은 과도한 화(火)의 기운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잘 보여준다. 화는 빛과 권력, 명예를 상징한다. 그러나 화가 지나치면 스스로를 태우는 불이 된다. 강한 추진력과 결단이 장점이 될 수 있지만, 균형을 잃으면 독단과 충돌로 이어진다. 이는 결국 자신을 소모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용신(用神)이다. 용신은 한 사람의 사주에서 균형을 잡아주는 핵심 기운이다. 화가 강하면 수(水)로 식히고, 토(土)로 중심을 잡아야 한다. 수는 냉정함과 성찰, 소통을 의미하며, 토는 안정과 책임을 뜻한다. 만약 강한 권력의 시기에 이러한 용신의 역할을 작동했다면, 극단적인 흐름을 벗어날 수 있었다.

이런 사건은 과도한 화(火)의 기운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잘 보여준다. 화는 빛과 권력, 명예를 상징한다. 그러나 화가 지나치면 스스로를 태우는 불이 된다. 강한 추진력과 결단이 장점이 될 수 있지만, 균형을 잃으면 독단과 충돌로 이어진다. 이는 결국 자신을 소모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용신(用神)이다. 용신은 한 사람의 사주에서 균형을 잡아주는 핵심 기운이다. 화가 강하면 수(水)로 식히고, 토(土)로 중심을 잡아야 한다. 수는 냉정함과 성찰, 소통을 의미하며, 토는 안정과 책임을 뜻한다. 만약 강한 권력의 시기에 이러한 용신의 역할을 작동했다면, 극단적인 흐름을 벗어날 수 있었다.

이런 사건은 과도한 화(火)의 기운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잘 보여준다. 화는 빛과 권력, 명예를 상징한다. 그러나 화가 지나치면 스스로를 태우는 불이 된다. 강한 추진력과 결단이 장점이 될 수 있지만, 균형을 잃으면 독단과 충돌로 이어진다. 이는 결국 자신을 소모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용신(用神)이다. 용신은 한 사람의 사주에서 균형을 잡아주는 핵심 기운이다. 화가 강하면 수(水)로 식히고, 토(土)로 중심을 잡아야 한다. 수는 냉정함과 성찰, 소통을 의미하며, 토는 안정과 책임을 뜻한다. 만약 강한 권력의 시기에 이러한 용신의 역할을 작동했다면, 극단적인 흐름을 벗어날 수 있었다.

tbN 광주교통방송 FM 97.3MHz

광주 FM97.3MHz, 전남 동부권 FM103.5MHz
청취자 참여전화 080-9701-333
수신자부담 무료 교통재보전화 080-333-8000

주요 프로그램 안내

출발! 광주대행진 (07:00~08:52)
프로듀서: 정회준 | 진행자: 노희실 | 작가: 박지영
각각의 자리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
재난과 교통 위주의 정확하고 참여할 수 있는 방송으로 청취자들의 출근길을 안전하고 활기차게 책임집니다.

tbN 차차차 (14:05~15:53)
프로듀서: 이진아 | 진행자: 정인택, 박승기 | 작가: 한효정
나른한 오후의 슬기로운 선택! 박승기, 정인택과 함께 유쾌한 에너지를 가득 충전해보세요.
충겨운 트로트 가요와 신나는 코너로 스트레스를 해소드립니다.

광주 FM97.3MHz, 전남 동부권 FM103.5MHz
청취자 참여전화 080-9701-333
수신자부담 무료 교통재보전화 080-333-8000

tbN 남도매거진 (17:00~17:52)
프로듀서: 권유경, 박다운 | 진행자: 박유리 | 작가: 정안숙
지역의 오늘을 읽고 내일을 바꿉시다.
남도매거진은 청취자와 지역을 잇는 가장 안전한 소통의 장이 되었습니다.

달리는 라디오 (18:05~19:55)
프로듀서: 나재규, 김지우 | 진행자: 최유경, 서예원 | 작가: 윤서희
복잡한 퇴근길, 달리는 라디오와 함께라면 마음은 집으로 달려갑니다!
퇴근길 교통정보와 우리지역의 다양한 매력을 유쾌하게 이야기합니다.
달리는 라디오는 역시 달라!

KCTV 광주방송

KCTV 광주방송 채널 5번
뉴스레보 FAX) 062-417-5041 www.kctv.co.kr

프로그램 안내

KCTV뉴스 (19:00~19:20, 23:00~23:20)
지역에서 일어나 다양한 주요 소식, 동네 이야기들을 전하는 데일리 뉴스.

포토힐링타임
아름다운 자연과 인물을 담은 사진을 재구성한 영상앨범. 아마추어 사진작가, 전문 활동가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출발! 시사대 (12:30~12:50, 20:30~20:50, 04:30~04:50)
시정자들이 직접 촬영하고 만든 아마추어 방송인들의 뜻깊고 생기 넘치는 영상작품을 만나본다.

이벤트 주요 프로그램

KCTV특집 <통합교육감 예비후보 토론회>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전남과 광주의 교육을 책임질 통합교육감으로 선출될 예비후보 4인을 초청해 지역 교육과 미래 인재 육성에 대한 생각과 청사진을 들어본다. 출연: 강숙경, 고두강, 김해룡, 이정선 예비후보
방송: 4월 20일(월)~21일(화) 19:15~20:15

네트워크 전국발굴 <규모도 맛도~ 더큰장어 광주>
5곳 케이블TV 방송국이 공동제작하는 각 지역의 맛과 멋을 담은 매거진TV. 이번에는 광주에 매드급 식당과 매장에 대해 무항생제 장어로 인기몰이 중인 장어구이 전문 식당을 찾았다.
방송: 4월 21일(화)~4월 24일(금) 13:00~13:30

달라라KCTV <게임동 품목형상평가>
광주의 원도심이자 최근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새로운 주거지로 뜨고 있는 게임동 품목형상평가를 찾아 이웃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본다.
방송: 4월 21일(화)~4월 24일(금) 14:00~14:30